

#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강화...한미동맹 범위 확대

윤 대통령 5박 7일 국민 방미 결산

차관보급 협의체 핵협의그룹 신설  
‘핵공유’ 여부 놓고 한·미간 시각차  
‘미국 올인’ 러시아·중국 견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국민 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고, 이번 방문을 통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기존 동맹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을 도출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대북 확장억제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백악관 공식 국민만찬,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센터 방문, 상·하원 합동회의의 연설 등 유의미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을 담아낸 이례적인 일정들도 눈길을 끌었다.

한미정상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함께 방문해 동맹의 의미를 되새겼고, 미 국방 청사(펜타곤)에서 미군 수뇌부로부터 직접 정세 브리핑도 받았다. 보스턴으로 이동해서는 한국 현대사 대통령으로서의 처음으로 하버드대 연단에도 섰다.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워싱턴 선언’이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문건으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았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골자다.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첫 고위급 상호 협의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28일 보스턴 하버드대 대담에서 “나토 핵 공유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립된 가장 첫 번째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과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워싱턴 선언 내 핵 관련 부분에서 한미 간 ‘해석 차’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한국 국민이 사실상 미국의 핵을 공유하게 된 것과 같은 안보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미동맹의 개념도 한층 다변화됐다. 한국전쟁 때 피로 맺어진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 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동맹의 무대를 ‘글로벌’로 넓힌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등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면서다.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심화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언급하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상·하원 합동회의의 연설에서도 새로운 한미동맹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와 자유의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힘, 5·18 망언 최고위원들 손 보나

윤리위 오늘 첫 회의의 징계 논의

국민의힘이 최근 잇따라 터진 ‘5·18 망언’ 인사에 대한 징계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윤리위는 일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게 당내 공론된 관측이다.

이중 김 최고위원의 경우 ‘셀프 근신’과 ‘사과행보’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당원 200여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내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당 지도부 인사는 “윤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윤리위원)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상식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시점에 대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인사는 올해로 2년 연속 국민의힘 의원 및 지도부 전원이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김 최고위원 논란의 발원 중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3·8 전당대회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2일 극우성향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SNS를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그의 실언이 최근 당 지지율 침체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고, 내년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외연 확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보수중조차 비호감 정서가 상당한 인물과 당 안팎 연결고리를 부각하면서 지도부에도 생채기가 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 스스로 당 윤리위에 본인의 발언과 행보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징계 여부를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역사관’의 영역이어서 무조건 징계는 옳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는 인터뷰 등을 통해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페이스북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비판하는 취지로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곧장 삭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국힘, 방미 성과 띄우기

野 비판엔 “근거없는 비난” 반박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지난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민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세 역사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정상외교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안보·경제·기술·문화·사이버 동맹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시킨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기술,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체계화한 최초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비판한 야당에 대해 “비판을 하겠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비난하려면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국익 앞에서만큼이라도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의 영어 연설에 대한 호평도 잇따랐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연설을 거론, “읽어보면 볼수록 명연설”이라며 “영어로 미 의회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방미 전 같은 국민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 보며 프랑스와 같은 지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새로운 국운이 이 나라를 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병 변호사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 발음과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거론하며 “조선 제일의 담력”, “새로운 시대의 한국 대통령”이라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 스마트 금호동, 재활용자원화 솔루션 도입

# 스마트 타운 챌린지 서비스

P

### E코포인트 적립

폰으로 E코플랫폼 로그인  
자원순환부스에서 재활용품 배출



자원순환부스

페트/캔/소주병/맥주병    폐지

스마트쓰레기통    폐지수거시스템

W

### E코포인트 사용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관리비 납부  
생활용품 교환  
포인트 현금화



이용자

금호동민(금호동에 주소를 둔 자)

장 소

금호동 주택단지 내 자원순환부스 12개소

운 영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광양시 정보통신과